

“선인들 삶 되새기며 고전이 가진 현대적 의미 발견”

신해진 전남대 국문과 교수 100번째 학술저역서 출간

‘설하거사 남기제 병자사략’ 번역...원천자료 집대성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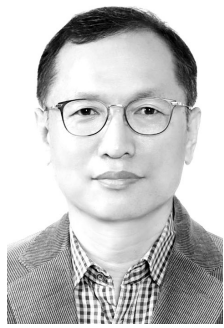
“17세기는 우리 민족이 왜란과 호란을 겪었던 수난기였습니다. 당시 처참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이들이 적지 않았지요. 그런 개인들의 열망과 각성이 담긴 기록을 번역해 오늘의 관점에서 다채롭게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남대 국어국문과 신해진 교수가 100번째 학술저역서를 발간했다.

신 교수는 조선 후기 문인 남기제가 저술한 ‘아이록’에 수록된 ‘설하거사 남기제 병자사략’을 번역 출간했다. 남기제는 ‘아이록’을 통해 동서 분당 이후 전개된 주요한 정치적 사건을 비롯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문제 등을 논하는 시각으로 정리하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에 번역 출간된 책의 원저는 당시 정치세력 간 당쟁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인 병자호란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전란은 최고위층부터 천민까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조선이 처했던 상황은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유사한 점이 있다”며 “그동안 역사적 보조 자료라는 이유로 실기문헌을 외면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 번역서가 당대 정치사뿐 아니라 사상사와 문화사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전 산문을 전공한 신 교수는 그동안 조선시대 고문헌자료를 발굴·번역해 원천자료 집대성에 매진해왔다. 특히 그간 학계에서 소홀했던 지역의 고전 자료 발굴, 고소설에 대한 연구를 매개로 고전이 지닌 인문가치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번역서 출간은 재단 인문학의 관점에서 인문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 학술저역서 100권을 비롯해 학술지 논문 39편을 출판·게재했다. 우수 학술도서 2회 선정, 학술상 4회 수상하는 등 고전문학의 심층적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한편 신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한문으로 쓰인 지역의 어문학을 오늘의 관점에서 다채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다”며 “선인들의 삶의 현장과 정신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고전이 가진 현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신속 대응 위한 자율구급단 운영



광주북부지역연구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주경남)은 광주 남부소방서와 연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자율구급단’(자율구급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구급단은 이태원 사고 이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맞물려, 타운 전 직원의 응급요원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는 취지로 마련됐다.

타운은 이를 위해 직원 66명으로 구성된 자율구급단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신속

한 119신고 및 CPR과 같은 초기 응급처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남부소방서 및 남구119 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타운 내 구급함을 비치해 노인 낙상 등 경미한 외상 환자 초기 응급 처치도 도모할 계획이다.

주경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율구급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포함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디민 기자 kdi@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서성현)는 최근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등교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담양군청,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경찰서, 담양보건소,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회, 담양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담양마음농고학교가기협의회 등 8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화장지세트, 치약세트, 팜플렛 등을 들고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괴롭

힘, 따돌림 등 학교폭력이 발생 시 꼭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야 하는 슬로건의 피켓팅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회 서성현 회장은 “신학기를 기해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천주교 ‘가톨릭페이’ 출시 종교계 비대면 기부 도입

한국 천주교 전국전신담당 사제회의는 비대면 봉헌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톨릭 하상’을 부활절인 9일 출시한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4일 전했다.

가톨릭 하상에 탑재된 ‘가톨릭페이’ 기능을 이용해 각종 기부금을 비대면으로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 계좌를 앱에 등록해 미리 충전한 뒤 주일 헌금이나 교무금, 미사예물을 봉헌할 수 있다. 교무금과 미사예물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낼 수 있으나 주일헌금의 경우 미사 때 성당에 직접 나와 QR코드를 스캔한 뒤 내도록 했다.

최근 종교계에서는 비대면 혹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차차 도입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0년부터 신자들이 교회 공식 앱을 이용해 그때 그때 헌금을 하거나 매월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할뉴스

고창농악보존회, 사업계획·예산안 등 정기총회 개최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는 최근 고창농악전수관에서 2023년도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고창농악 원로회원을 비롯 총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보존회 현황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농악보존회 제공>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열린채널 4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00 오아시스(재)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프린세스 바리(재)	00 애니갤러리 30 안녕 자두야 45 헬로키티X에카드볼
12	00 KBS 뉴스 12	1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흥김동전(재)	00 12 MBC 뉴스 25 글로벌 도네이션쇼 W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오세모(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티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문화>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 10 내 비밀친구 행피(재) 30 TV 유치원	00 KBS 뉴스타임 10 내 비밀친구 행피(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시사간건	00 스튜디오 K(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도깨비캡처-보물산의 전설 15 소스리아 -사라진 레시피카드를 찾아서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 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KBS광주 특별기획 '꿈꾸는 정원'	50 비밀의 여자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00 일타강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편먹고 공치리5-승부사들
11	30 KBS 뉴스라인	00 9층 시사극 45 세상의 모든 다큐		
12	10 시사기획 창(재)	35 아이 러브 스포츠	10 방과 후 설렘 시즌2 소년판타지 스페셜	30 KBC 문화가중계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5 뽀뽀뽀 뽀로로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다! 후기심떡지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5 웃기는 처음 영어(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뽀뽀뽀 뽀로로
07:00 시용	12:10 극한직업	18:40 EBS 뉴스
07:15 하프와 친구들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재)	19:00 한국의 돌레길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재)	19:20 순간 포착, 야생
07:45 엄마 까투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재)	19:50 건축탐구-집
08:00 당동맹 유치원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슈퍼퍼퍼 잉글리시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5 한국기행
08:35 웃기는 처음 영어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봄, 남해에서 하동까지 3부 어서와 남해는 처음이지?>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당동맹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5 최고다! 후기심떡지(재)	17:00 페퍼 피그	22:45 인간과 바다
0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10 마샤와 곰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5일(음 윤2월 5일 癸巳)

<p>36년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장담은 금물이다. 48년생 부분적인 곳에 집착하지 말라. 60년생 기민한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72년생 일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84년생 제안사가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동세로다. 96년생 합리적인 추진이 불만을 해소해 주리라. 행운의 숫자 : 34, 63</p>	<p>42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열고 기쁘게 맞이하라. 54년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합리적이다. 66년생 기묘한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78년생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90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02년생 방법과 강도에 따라서 결과는 제각각이다. 행운의 숫자 : 41, 99</p>
<p>37년생 한번 나타낸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9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61년생 만남은 있으나 탐색전에 불과한 구도이다. 73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전도양양하리라. 85년생 현재의 상태로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97년생 행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1, 72</p>	<p>43년생 가는 곳마다 상서로움이 있다. 55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 할 일은 없다. 67년생 서로 들어맞지 아니 하여 애를 먹는 모양새가 전개된다. 79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실은 양호하리라. 91년생 실과 허를 구분할 수 있어 아만 합당하다. 03년생 자연스럽게 진행시키고자 하는 자세가 양호한 결과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18, 80</p>
<p>38년생 비바람이 치고 있으니 활동을 자제해야 할 때다. 50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 62년생 관계가 개선되어야 진전을 보일 것이다. 74년생 처음에는 거칠더라도 점점 부드러워질 것이다. 86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짐에 비유할 만하다. 98년생 적당히 햇볕을 쬐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71</p>	<p>44년생 기본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56년생 순조로워 보이지만 결과는 미흡하다. 68년생 초기에 사려 깊은 공을 들여야만 한다. 80년생 상대를 존중했을 때 자신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92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04년생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니 눈여겨 보아라. 행운의 숫자 : 35, 77</p>
<p>39년생 반드시 맑은 정신에서 행해야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51년생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63년생 일시적인 정황일 뿐이니 패념할 필요는 없다. 75년생 금돈도 안팎이 있다. 87년생 굳이 표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99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행운의 숫자 : 42, 51</p>	<p>45년생 어려운 시기를 몇 번 넘기가 이루어지겠다. 57년생 서행하면 특이요, 급행하면 반드시 실리다. 69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81년생 본의 아닌 연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93년생 기본 전로는 안전하지만 비보로 좌절된다는 사실을 알라. 05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3, 87</p>
<p>40년생 변화 가능성은 열여 두되 초과할 필요는 없다. 52년생 불변하다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64년생 생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고. 76년생 상대는 힌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88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처했을 때 결과가 더 낫다. 00년생 당해 보면 알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58</p>	<p>34년생 조금도 새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46년생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58년생 예견되는 위험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안정 궤도에 진입하리라. 94년생 허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9, 83</p>
<p>41년생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53년생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65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77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깃드는 양태이다. 89년생 마음을 알아 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01년생 기능의 활용에 신경 써라. 행운의 숫자 : 17, 50</p>	<p>35년생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구도이다. 47년생 그 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두각을 드러내게 된다. 59년생 면밀히 점검한 후에 진행하라. 71년생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헤나가는 것이 가장 낫다. 83년생 타인에게 비치는 겉모습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95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65</p>